

2025 임팩트그라운드 미래비전 계획서

재단법인 브라이언임팩트는

기술이 사람을 도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기술로 세상을 바꾸는 혁신가들과
여러 분야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6월 출범했습니다

임팩트그라운드는

사회혁신조직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사회문제를 풀어내고,
스케일업/스케일아웃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다양한 실험과 아이디어를 시도해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본 자료는 2025 임팩트그라운드의 지원을 받는 사회혁신조직의 미래비전계획서입니다.
사회공익을 위해, 본 자료를 공유하며, 영리목적의 사용이나 자료의 편집은 불가합니다.

"공익법센터 어필" 2025년 사업 계획서

■ 제1장 조직소개

● 조직개요

대표자 및 이사회 명단			
대표 : 정신영 이사 : 김세진, 김승혜, 김영환, 김종철, 우재욱, 이명광, 정신영 감사 : 박대호, 임지선			
설립년월일	2011년 1월 1일	상근직원 수	12명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47, 505호		
법인유형	☐ 재단법인 ☒ 사단법인 ☐ 비영리 민간단체 ☐ 비영리 임의단체 ☐ 공공기관 ☐ 사회복지법인 ☐ 기타 ()		
홈페이지	www.apil.or.kr	모 법인명	모 법인이 있는 경우, 기재
공익법인	Y	주무관청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의 설립목적			
한국 사회의 취약한 이주민들의 인권을 보호·증진하고 해외 한국기업의 인권 침해를 감시·방지하는 등 국내외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데 있다.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부기관, 법원 등에 대한 신청 및 소송 지원 2. 제도개선 및 입법 운동 3. 연구 및 교육 4. 국내외 인권단체와의 연대 5. 홍보 및 캠페인 6. 국제인권메커니즘의 활용 7. '법을 통한 공익 활동'의 중개 8. 목적사업에 필요한 수익사업 9. 기타 기관의 목적달성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일체의 사업			

● 주요 사업(3개 이내)

사업명	사업 내용 (한 문장으로 기술)
취약한 외국인 법률지원	난민, 구금된 이주민, 인신매매 피해자, 무국적자 및 해외 한국기업 인권침해 피해자의 법률지원
취약한 외국인을 위한 입법운동	난민, 구금된 이주민, 인신매매 피해자, 무국적자 및 해외 한국기업 인권침해 피해자의 권리 증진을 위한 법의 재개정 운동
취약한 외국인에 대한 인식개선	난민, 구금된 이주민, 인신매매 피해자, 무국적자 및 해외 한국기업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강의 및 캠페인 진행을 통한 인식개선 활동

● 키워드 / 조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를 3개 작성해 주세요.

#난민인권 #공익변호사 #환대

■ 제2장 문제정의와 문제해결 프레임워크

● [문제정의]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난민들을 적대하는 한국사회 - 현저히 낮은 난민인정율

전쟁과 무력 분쟁, 정치적 박해, 종교 자유 탄압, 소수자 집단에 대한 극심한 차별로 인하여 난민이 되어 고향을 떠나 안전을 찾으려 국경을 넘는 숫자가 계속 증가. 제 1 세계를 제외하고 동아시아에서 사실상 유일한 피난처로서 기능하는 한국을 찾는 난민들의 수는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 정부에겐 미래 지향적 이민정책의 부재 속 난민보호에 관한 의지 및 실질적 정책이 없고, 동아시아 여타국가와 같이 난민인정에 극히 인색함. 입국부터 심사, 정착까지 모든 부분의 난민인정절차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 이에 OECD 국가 평균 난민인정율 32%에 비해 한국은 현저하게 낮은 0.4~1%(2020 년, 2021 년 기준)의 난민만이, 그리고 인권단체를 통해 극히 예외적으로 법률 조력을 받은 난민만이 지위를 얻고 보호가 필요한 대부분의 난민들은 한국에서 피난처를 찾지 못하고 수년간 떠돌거나, 구금, 추방됨. 그럼에도 인권단체들의 수적 역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대부분의 난민들의 법률 조력의 기회조차 갖지 못함.

난민들이 머물 자리를 주지 않는 한국 사회 - 열악하고 미비한 난민 처우

한국에서 '난민'으로 법적 지위를 얻지 못하였으나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난민들은 제도 밖으로 내몰리며 한국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 버림. 이들은 체류자격이 없기 때문에 취약한 상황에서 노동을 할 수밖에 없으며 구금의 위험도 높음. 과거 경험에 의한 트라우마 등에 대한 치료가 필요함에도 치료받을 수 없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제도적 복지에는 기댈 수 없기에 자선단체의 시혜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 아이들의 경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학교장의 재량의 영역으로 남겨두어 '권리'로서 보장받지는 못하고 있음. 한국 시민들도 녹록치 않은 삶을 꾸리는 한국사회에서 난민들이 머물 자리가 마련되지 않을 때 다양성과 문화, 용기의 원천인 난민들의 자긍심 있는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난민과 시민들의 어우러지는 연대와 공동체 형성 자체도 기대하기 요원함.

난민들도 희생양으로 삼아 가짜 해결책에 기대려 하는 한국 사회 - 난민들을 향한 혐오의 만연

더 나아가 원자화(Atomization)된 개인으로 구성된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불안을 투영하는 대상으로 소수자인 난민들이 종종 소환되고 있음. 이주사회로의 변화가 이미 다가온 한국에서 이주민에 대한 혐오는 오히려 강해져서 다양성 속 유대감을 유지하는 한국 사회의 연대를 저해하고 있는데, 트럼프즘 형태의 혐오정치가 한국사회에서도 조금씩 난민을 '우리의 몫을 빼앗는 문제의 근원인 낯선 타자'로 활용되는 담론으로 싹트고 있음. 일례로 한국 여성의 안전은 한국 사회의 여성 인권이 향상을 통해 풀어야 하는 문제이지만, 엉뚱하게 '타자'인 무슬림 남성의 유입을 주된 원인으로 이해하여 난민 혐오를 조장하는 일부 담론을 통해 그 사이에서 인권 침해를 당해 온 취약한 난민 여성들이 피해를 입고 있음. '한국인'의 일자리 부족 문제의 원인을 '일자리를 뺏는 외국인'들에게 전가하며 본질적인 문제 해결 대신에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음. 불안을 투영하는 대상으로 난민들을 소환되며 문제의 본질이 아닌 가짜 해결책이 제시되어 '다양한 우리'가 공존하는 미래에 대한 상상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함.

지속가능한 활동에 한계를 맞닥뜨린 난민인권단체들

한국의 난민인권단체들은 어필을 포함하여 부족한 매패워와 조직속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적대적인 정부의 정책과 시민들의 낯설 속에서 난민들의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왔음. 그러나 많은 단체가 지속가능한 형태로 활동가들이 장기적으로 지치지 않고 일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특히 '전쟁'을 멈출 수는 없지만 '난민'을 보호할 수 있는 난민인권활동의 핵심적 축을 이루는 법률 조력 분야는 점차, 보다 냉소적 형태의 정책을 운용하려는 정부와 사법부의 기계적인 판단 속에서 운신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어서 대부분의 난민들이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고, 시스템의 부재를 인권단체들이 몸으로 막아서 왔던 형국에서 운신능력이 줄어드는 피해는 한국을 찾은 난민들이 입고 있음

● [프레임워크] 우리 조직이 사용하는 프레임워크(문제해결 모델)

프레임워크 소개 : 타겟 및 접근 방법 등

**1. 법률 조력 기회 자체가 봉쇄된 난민들의 생애주기를 기반으로 하는 무료 변호
[법률 조력활동]**

한국의 난민인정절차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진행되는 행정 절차부터 법원에서 진행되는 사법 절차까지 이어지는데, 이를 총괄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각 절차상 결과가 담당자의 재량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 결과적 형평성이나 공정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자유롭지 못함. 이 때문에 비영리 인권단체의 전문적인 법률 조력 없이 난민으로 인정받아 한국사회에 정착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임. 어필은 정부가 제공하는 국선변호 제도도 없이 '벽'을 맞닥뜨린 난민들의 '기댈 곳'으로서 '무료'로 난민들을 변호함. 또한 법률, 제도, 규범 및 오랜 경험의 전문가인 변호사, 국가정황 정보에 관한 리서처, 숙련된 통번역 네트워크를 통해 법률 조력을 체계화하여 제공하고, 공항에서 갇힌 난민의 입국에서부터, 행정, 사법절차에서의 난민지위의 인정, 부당한 구금에서의 해제, 헤어진 난민 가족들의 결합, 영주권과 국적의 취득까지 기댈 곳 없는 난민들의 'Life-Cycle' 법률 조력을 하면서, 정부의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의 공백을 날카롭게 메꿔가고 있음.

2. 난민 권리 옹호를 위한 정책 Advocacy [정부 정책 및 제도 개선 활동]

한국의 상황을 고려 어필은 변호사이자, 연구자, 활동가의 정체성을 동시에 가지고 개별 난민 사건 법률 대리와 '틀' 자체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병행함. 난민인정절차 개별 사건 조력 과정에서 드러나는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기획 소송을 진행하거나, 연구, 연대활동을 통해 법무부, 외교부 등을 상대로 제도개선 요청을 적극적으로 진행. 2018 년 제주예멘 난민 피난, 2021 년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피난, 2022 년 우크라이나 난민 보호와 같은 일련의 국면 속 정부의 정책적 입장과 기조를 개선시키기 위해 정책대안을 지속적으로 직접 또는 언론, 시민들과 연대활동, 및 연구를 통해 제시함. 난민법 제정운동과 같이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를 통해 개별 법제의 입법 운동을 진행. 또한 다양한 형태의 한국 사회 속 난민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난민들의 권리 침해를 양산하는 제도의 현실을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정부와 국회, 소송 등을 통한 제도 개선 활동을 활발히 진행.

3. 모두가 함께 사는 한국사회를 위한 [인식개선 활동]

개별 난민의 조력은 결국 정책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또한 결국 한국사회의 시민들의 연대의식을 고취하고, 한국사회를 현대의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 근본적으로 요구가 되지만 이에 관한 정부의 활동이 전무함. 시민들의 마음을 얻는 활동의 중요성에 천착해온 어필은 특히 2018년 예멘 난민 피난시 발생한 '난민들에 대한 낯섬'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시민들을 만나는 강의에 더욱 주력해 왔음. 특히 미래의 한국사회를 형성할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대학생과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대중 강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또한 실제 난민 및 외국인들을 전담하는 검사 및 출입국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도 강의를 진행함. 지난 11년 동안 300회 이상의 강의를 통해 전국을 찾아다니고 있음. 또한 한국의 난민 지원 비영리 단체로서는 선도적으로 2018년부터 유튜브 채널을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대면 강의를 통해 만날 수 없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난민에 대한 인식개선 기회를 마련하고, 온라인 공간에 난민의 이야기와 관련된 경험들을 축적해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있음.

기존 프레임워크와의 차별점(혁신점)

비영리, 영리 조직 통틀어 찾기 어려운 난민 법률 조력의 '전문성'과 '체계성'

변호사가 NGO에서 비영리단체에서 다중 정체성을 지니고 전업으로 활동하는 공익변호사활동 형태 자체는 종전 비즈니스 법률가들의 프로보노 지원 모델과 완전히 다름. 어필은 그러한 한국 특유의 공익변호사 포맷 중에서도 난민분야에서는 어필은 독보적인 모델임. 어필은 ①국내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는 '난민에 관한 국제규범', '국내의 이민관계법령', '행정 및 사법 절차'의 축적된 전문적인 변호사풀, ②난민들의 출신국에 대한 국가정황정보(COI)에 관한 11년간의 방대하게 축적된 정보 및 연구원 및 인턴을 통한 지속적이고 신속한 리서치 풀, ③ 영어 외에도 불어, 아랍어, 페르시아어 등 축적된 통번역 자원활동가 및 네트워크를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법률지원을 난민들의 개별 사건과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생애주기에 맞춰 제공함. 국내의 환경에서 난민 법률 조력은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고 있고, 위와 같은 세가지 제반조건과, 많은 Work-hour를 요구하기에 영리 목적의 비즈니스 로펌은 프로보노 형태로도 접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대부분의 비영리 단체들도 어필과 같은 축적된 형태의 법률 조력 그리고 난민지위인정의 성공적 결과로까지 이어지는 법률 조력은 어디서도 제공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임. 비록 인적 역량의 부족으로 수많은 난민들에 다 미치지 못하는 못하나, 이러한 방법으로 어필은 지난 11년간 한국을 찾은 500명 이상의 난민들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해 왔음.

비영리 공익변호사단체의 활동가로서 '헌신성' 있는 'Not 사건 But 사람 중심 난민'지원활동

어필은 더욱이 '전문성'과 '체계성'을 넘어선 '헌신적'인 난민법률지원을 만들어 왔음.

공항에 갇히거나, 외국인보호소에 갇혀 보이지도 않는 여러 난민들을 찾아가고 부당함과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싸워 나가는 변호사들은 영리 로펌에서는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임. 더욱이 난민사건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단계부터 법원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최대 4, 5년에 이를 정도로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프로보노로 '분절된 난민 절차 일부'는 지원할 수 있으나 난민이 한국사회에 맞닥뜨리는 다양한 모든 벽을 넘어서기 위해 '사람으로서의 난민'을 전인격적 존재로 보고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 그러나 어필은 비영리 공익변호사 단체로 수익을 내기 위한 사건 수임을 하지 않고 어필에서 상근 및 전업 변호사로서 업무에 집중하고 있기에 다른 계산과 시간, 노력과 아웃풋에 관한 고려 없이, 또한 개별적 정치적 고려 없이 타협 없는 헌신적인 난민 조력을 해나갈 수 있고, 이에 전국 구석구석을 뛰어다니며 '사건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난민법률지원을 해나갈 수 있음.

뉴미디어의 활용을 통한 인식제고 활동

어필은 강의와 언론, 기자회견 등을 통한 메시지 전달 등 시민단체들의 일반적인 인식제고 활동과 미디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단체임. 한국의 대부분의 비영리 시민단체들보다 먼저, 단지 단체소식활동 소개나 자료축적을 위한 공간 마련이 아닌 시민들과 소통하고 이야기를 쌓아가기 위한 매체로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 운영하여 내용을 쌓아가며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옴. 난민인권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콘텐츠부터 인종차별의 기원을 다루는 이슈까지 폭넓은 주제를 통해 난민인권 논의의 기반을 확산시켜 옴. 특히 기존 매체에서 다루어지기 어려운 난민 여성 당사자의 이야기를 담은 '네일살롱' 등 기존 레거시 미디어에서 '등장'하기 어려웠던 난민당사자의 이야기가 웹상에 직접 등장하여 '보이는 존재'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작업해옴.

한편, 어필은 여타 단체들과 달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노력에도 적극적임. 난민판례 데이터 베이스(W4refugees)의 구축 및 파일럿 운용 사례 등을 통해 해외 선진 사례들의 벤치마킹을 통해 리소스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의 역량을 모아갈 수 있는 방안을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도 지속해 왔음

●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성공의 경험

1. 한국을 피난처로 찾은 난민들의 법적 권리 확인

난민인정율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도 어필의 법률 조력을 통해 난민신청자들이 난민인정을 받고 있음. 2022년 9월 말 기준, 올해 한국 법원에서 인정된 난민 사건의 100%(2019-2021년 3개년은 약 55%)을 어필이 조력하였고, 통계가 모두 공개되어 있지 않으나 행정심판인 2차 난민위원회 또는 1차 난민심사에서 법률 조력을 거쳐 난민 인정 받은 사건들의 약 70% 역시 어필이 담당하고 있다고 평가됨. 그동안 어필을 통해 난민 또는 인도적 체류지위로 한국사회에 정착하게 된 난민들의 국적을 열거해 보면, 가나, 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 리비아, 모로코, 미얀마, 카친 및 로힝야 등 소수민족 부룬디, 사우디,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에리트리아, 에티오피아, 예멘, 요르단, 우간다, 이라크, 이란, 이집트, 중국, 위구르, 카메룬, 케냐, 콩고, 파키스탄 등이 있음.

2. 선례적 판결 및 입법운동을 통한 제도 개선 및 정책 변화 견인

법률전문가로서 난민사건 관련하여 국내에서 선례가 없었던 제도형성적 판결을 만들어 내서, 행정청의 난민지위 인정을 견인하고, 개별 제도 개선에 기여해옴. ① 난민인정 법리에 관한 국내 최초 대법원 승소판결 등 대부분 국적 난민들의 지위 인정 및 난민협약상 국내 법리 선언에 관한 거의 모든 선례적 판결들, ② 공항에 갇힌 난민들에 관한 판결들(최초의 난민불회부결정취소 승소, 최초의 공항 내 송환대기실 및 환승 구역 인신보호법 구제청구 승소, 행정구금에서 변호인접견의 위헌확인, 시리아 난민에 대한 국경폐쇄), ③ 난민신청자의 체류할 권리 및 생계비에 관한 판결들, ④ 억울하게 갇힌 난민의 구금 해제 기준에 관한 판결들(보호명령 취소,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등)이 그것임.

또한 2011년 말 난민법 제정 과정에 시민사회의 린치핀 멤버로서 성안 및 협상 과정에 기여하여 아시아 최초의 독립적인 난민협약 이행법률 제정 국가가 되도록 하였고, 이후 관련 활동을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 들에도 전파하고 국제 연대활동을 만들어 나갔음.

한편, 난민인권활동 연단체들을 핵심적으로 견인해 나감을 통해(어필은 총 활동기간 11년 중 8년 동안 난민인권네트워크 대표를 역임하고 있음) 국내의 난민에 관한 모든 중요 정책적 국면 - 2015년 시리아 난민, 2018년 예멘 난민, 2021년 아프가니스탄, 2022년 우크라이나 - 에서 시민사회의 입장 및 인권규범에 입각한 입장을 제시하여,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정책적 개선을 이끌어 내오며 정부 정책 비판과 잘못된 소수자 혐오 목소리에 대항하는 한국시민사회의 흔들림 없는 목소리가 되어 왔음(제주도

예멘 난민 법률 조력 지원단을 결성하여 거의 모든 예멘 난민들의 최소한의 한국 정착 근거 조력,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긴급 피난에 관한 정책적 기반 연구를 제공하여 작전 성공 견인, 미얀마 - 우크라이나 난민들에 관한 특별체류조치 촉구를 통한 최소한의 정착 계기 마련)

3. '난민들에게 최후의 기댈 보루'로서, '난민'에 관한 전문가로서 어필의 위치 확립

11년간의 지속적 활동을 통해 어필은 한국사회에서 법률 조력에 있어 최후의 보루와 같이 믿을 수 있는 기댈 곳으로 자리 매김하게 되었음. 다양한 국적별 난민 공동체들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국적과 다양한 현장에서 난민들이 '믿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단체'로 위치가 확립된 것임. 또한 국내외 난민에 관한 이슈의 전문가의 의견과 시각이 필요한 모든 과정에서 언론, 학술 공동연구, 정책적 견해 청취에 있어서(최근 미국 하원의 란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에도 어필 활동가가 증인으로 출석)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전문가'로 위상이 확립되었음.

■ 제3장 미래비전

●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어떤 요소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적대에서 환대로 - 난민 법률 조력 비율의 비약적 향상

원자화된 한국 사회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연대하는 사회가 되도록 가장 취약한 바깥 고리에 있는 난민들의 곁에 서는 활동을 해야함. 어필은 난민들이 잠재적 범죄자나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닌 보호가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대되고 난민인정절차가 개선되어 더 많은 난민들이 '난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현재 대부분의 난민들이 난민인정절차에서 법률 조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①국내에서 가장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종전의 매파워와 기반을 확충하여 한국 시민사회의 튼튼한 법률 조력의 메카로 기능하게 하고, ②또한 확충된 자원을 이용 어필 바깥에서도 입법적 개선과 제도 변화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 '국선전담변호제도', '소송구조제도' 등의 제도적 근거 마련 촉구를 보다 가열차게 펼쳐, 제도적 틀 안에서도 '경제능력과 무관하게 위험에 빠져 한국을 찾은 난민이라면 누구나 한국사회에서는 공정하게 절차에 임할 수 있게'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고자 함. 시민사회에서도 조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 또한 난민인정의 주체인 법무부와 법원에서 난민협약에 근거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촉구함.

난민들이 마땅히 설 자리를 찾도록 - 난민 처우 개선

난민들의 체류할 권리, 자의적으로 구금되지 않을 권리, 일할 권리 등의 자유권과 사회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동시에 난민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 이해하고 고지 받기 위해 다양한 언어로 정보 접근이 가능하도록 요구하고 시스템 구축. 특히 제도의 사각 지대에서 위기 상황에 있는 난민들에게 긴급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난민들이 단지 곤경을 피하는 것을 넘어, 한국사회에서 자긍심이 있는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난민들이 꽃 피울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 난민 인식 개선

난민은 사회의 불안과 갈등을 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의 안전과 존엄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대중 인식 개선 도모. 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난민들에 대한 평면적인 내러티브에서 벗어나서 각 사람들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특히 학생, 청년 집단에게 함께 살아가야하는 사회 구성원으로 이해도가 넓어질 수 있도록 유도.

- 스케일업 또는 스케일아웃에 대한 계획

Scale-Up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양적 확충, 리서처 및 주요국가 통번역인의 안정적 고용 등으로 10여년간 동아시아에서 유례없이 축적해온 전문적인 난민 법률 조력을 위한 시스템을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형태로 마련함.

Scale-Out

어필은 (한국 난민인권단체들의 연대체인) 난민인권네트워크에서 8년간 의장 및 집행부로서 핵심적 역할을 해오고 있는 바, 어필이 쌓아온 전문성으로 난민인권네트워크 내 타 단체들과 긴밀한 협업 또는 프로보노로 활동하는 로펌 변호사들이 활동에 대한 제도적 리소스 공유방법 확충을 통해 타 단체들의 역량 강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임.

- 지원사업의 성과 정의

한국을 찾은 난민들에 대한 법률 조력 확대

난민인정절차(RSD) 조력을 하는 변호사 수 증가, 전문적인 국가정황정보 리서처 및 통역인 네트워크의 확보, 난민 법률 조력 건수 증가

난민 당사자들의 권리 인식 증진

난민 권리 인식 증진을 위한 자료에 대한 통번역 건수 증가, 출입국 및 법원 출석 외에도 일상 생활에서 통번역이 필요한 경우 통번역 지원 건수 증가

위기 난민 지원 건수 증가

사회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난민들이 도움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위기 상황에 있는 난민에 대한 재정 지원 건수 증가

한국사회의 난민에 대한 인식 개선

난민 당사자의 이야기를 유튜브 채널 및 인스타를 통해 전달, 난민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진행

한국 시민사회의 주요한 부분으로서 난민인권단체의 역량 강화

난민인권네트워크 내의 단체에게 국가정황정보 및 사례관리 시스템, 통번역 네트워크 등의 리소스 공유, 난민인권네트워크 내 단체와 협력 사업 진행

- 디지털 기술의 활용

사례지원 관리시스템(CRM 체계 구축)

조력하는 난민들에 대한 사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직 내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아카이빙 시스템으로 활용하여 개별 난민들의 사례지원 히스토리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어필 DB AI 학습 후 RAG 모델 구축

어필이 거의 독보적으로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주장, 증거, 국가정황정보가 담긴 서면, 판례, 법령, 지침, 논문 등을 학습시킨 모델을 통해 초기 서면 작성 체계를 시도해보고, 이후 모델이 안정화되면 아래 2026 년 이후 사업의 test-bed 로 활용.

AI 의 도입으로 인해 AI agent 앱, AI 당사자 본인 서면작성 앱 구축(후반부 2026 년 이후의 예정 사업에서 상세 설명)

난민들이 난민인정절차 및 관련 제도, 현황에 대해 다양한 언어로 접근 가능하도록 디지털 플랫폼 구축

■ 제4장 세부 사업계획서 (2025년)

● Scope and Approach 사업 범위와 접근 방식

사업목적

우리 사회에서 구조적 차별과 법적 보호의 부재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 당하고 있는 이방인들 - 난민, 구금된 이주민과 무국적자 등 취약한 이주민과 인신매매, 젠더폭력의 피해자, 기업에 의한 인권 침해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사업 추진방향 및 핵심목표

1. 추진방향

법적 전문성을 활용하여 5가지 핵심목표를 위해 1)소송/신청조력, 2)입법 및 로비, 3)연구 활동, 4) 인식 제고 활동, 5)연대활동을 창의적이고 중첩적으로 수행함

2. 핵심목표

- 핵심목표1 : 한국사회 내 난민 등 취약한 이방인의 포괄적 법적보호 토대 구축
- 핵심목표2 : 난민 등 취약한 이방인에 대한 어필의 법률지원 고도화
- 핵심목표3 : 한국 내 이방인의 성원권의 토대를 놓는 환대의 가치 확산
- 핵심목표4 : 어필 조직의 인적,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
- 핵심목표5 : 네트워크(연대단체, 지지자커뮤니티)의 건강한 확장

● 세부 사업계획서

<<2025년 부터의 어필의 무게이동 : '전시 응급실 형태의 구조와 수세적 제도개선'을 '날카로운 창끝부대 형태의 구조와 공세적 제도개선'으로>>

어필의 비전을 보다 선명하게 달성하기 위해, 기존의 검증된 문제해결모델인 현행사업들을 유지하되, 다음과 같은 한국사회에 대한 현장분석 속 문제의식을 통해 다년도 계획을 마련하여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문제의식 1] 매년 18,000여명이 되는 난민신청자들의 Legal Representation을 어필이, 또는 어필이 중심이 된 연대단체들의 연대를 통해 직접 다 책임질 수 있는가?

- 공익법센터 어필이 만들어 내온 사람 중심 변호를 통한 수많은 난민 등 취약한 이방인 구조의 성과, 다양한 제도 개선, 임팩트 창출은 독보적으로 분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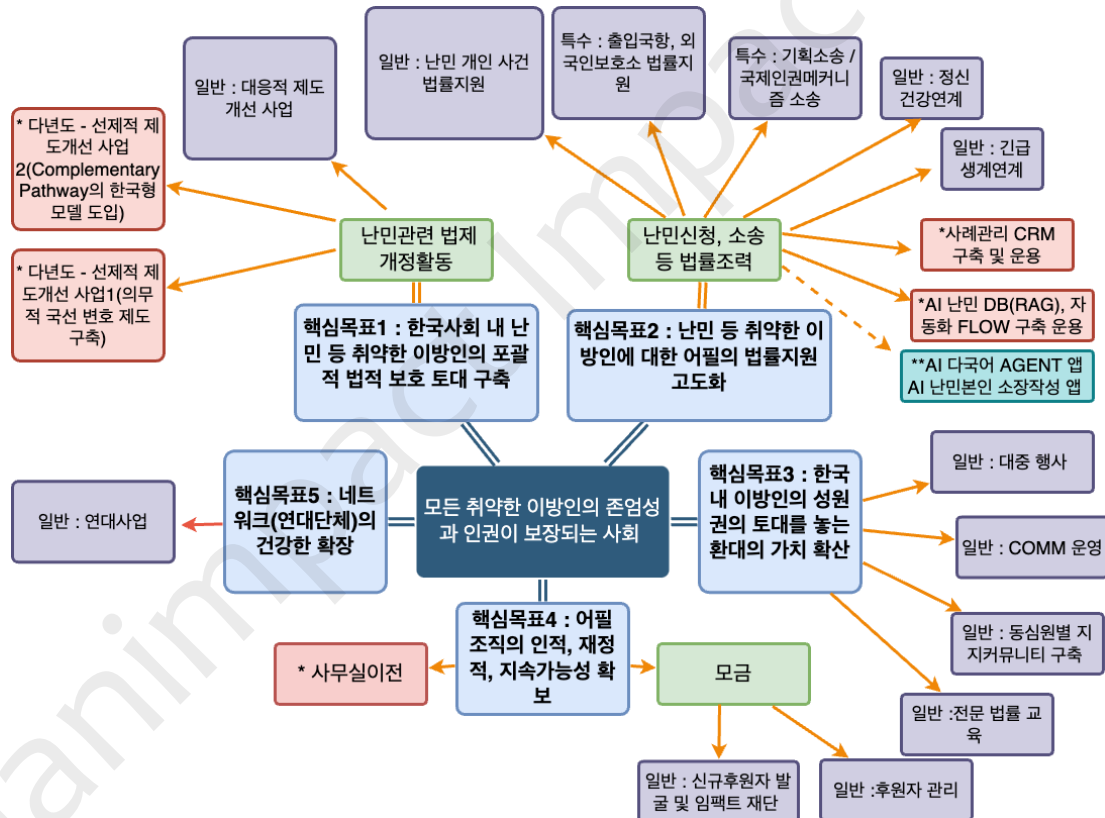
- 그러나, 어필은 사람을 임팩트의 도구가 아닌 중심에 놓고 Legal Representation을 수행하는 사실상 거의 유일한 법률지원 단체로, 전문성과 승리의 경험이 축적되어 어도, 증가하는 난민신청자의 수와, 한국 사회 내의 비우호적 환경은 어필 크루들의 몸을 갈아넣는 방법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움

[문제의식 2] 정부가 initiative 를 갖는 억제적 난민 management 와의 대결적 구도는 과연 중장기적으로 바뀔 것이 예상되는가 아니면 다른 모멘텀을 만들어 내야하는가?

- 시민들이 개입되지 않는, 정부와 난민인권활동 단체들의 대립적 활동만으로는 제도 개선을 위한 새로운 모멘텀과 정치적 의사를 모아내기 어려움

[문제의식 3] 변화된 필드 : AI 의 전면적 직무도입 환경으로의 국제적 변화 속 AI 와 임팩트의 연결을 어필의 사업과 연계하여 선순환시킬 것인가?

[그림 : 2025년 어필 핵심 목표 - 사업 다이어그램]



*보라색 박스는 현행사업

*빨간색 박스는 신규사업(이와 연계된 청록색은 신규사업과 연계된 차년도 사업)

❖ 25년 신규사업 계획

핵심목표 1 “난민 관련 법제 개정활동

[신규사업1] (다년도) 선제적 제도개선 사업 : 의무적 국선 변호 제도 구축"

- 99.9%의 난민들이 아무런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현실 속 일반적 제도구축의 필요
- 난민법 초안, 유럽신비호협약 지침(directive)의 선례들을 도입, 국선변호 제도를 구축. 한국을 찾은 모든 난민이 정부의 제도 속 최소한의 변호사의 조력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함

[신규사업 2] (다년도)선제적 제도개선 사업 : Complementary Pathway의 한국형 모델 도입

- 과거 20 년간 정부(이민당국)의 난민에 대한 억제적 정책은 향후 10 년동안도 유사할 것으로 추측되므로, 한국 사회 내 옹호 여론 및 집단 형성을 위해서는 더 많은 시민들이 난민을 만날 수 있는 접점이 필요함.
- 보호 주체 측면에서, 시민들이 난민을 초청하고, 경로 측면에서 난민 아닌 다른 유형(학생, 노동) 형태로 난민이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complementary pathway 도입

예 : 시민 난민 초청 사증(2023 영국, 2023 일본, 종래 캐나다)

[기대효과]

신규 사업과제 1, 2 를 통해 형식적으로 '모든 난민들'에 대한 Legal representation 의 틀이 구축되고, '시민들이 initiative 를 갖는 제도'를 통해 통제적인 정부의 조절에서, 시민들이 직접 접점을 넓히는 활동이 형성되면, '가능한 모든 사람들을 한명이라도 더 구하자'에서, '제도적 틀로 보호되지 않는 사람들', '집중적인 별도의 법률조력이 필요한 집단들'에 대하여 **임팩트와 사람중심이 조화된 효율화된 법률조력**을 제공할 수 있음.

핵심목표 2 “난민신청, 소송등 법률조력” 관련

[신규사업3] 난민 CRM 체계구축

- 현재 사례관리, 히스토리 관리, 임팩트 측정을 위한 통계관리가 체계부재로 어려움
- 해당하는"사건 intake 단계에서 난민의 인적정보와 시계열적 상담 내역이 정리되고 태그별로 통계가 반영되는 변형된 CRM툴 구축" 모색

[신규사업4] 어필 내부 과거 서면 DB 구축을 통한 AI RAG 모델 생성

- 어필 내부 NAS에서 12년간 축적된 폴더별로 정리되어 있으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움

- 서버의 재판서면 및 의견서 중 반복사용하는 서면의 법리 설명 단락과 국가정황정보를 학습(과거 DB는 파이썬 통해 PDF로 자동 변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익명화를 시킨 이후 학습)시킨 RAG 모델 생성 시도

[신규사업5] 상용화된 AI 모델 활용 기존 업무 중 일부 자동화 FLOW 도입

(국가정황정보 리서치 및 발체번역, 난민들 증거 분류, 요약 등, **[신규사업 4]의 성공적 안착시 차년도 대외 사업 연계**)

- 26년도 신규사업 ① 난민신청자 본인 서면 작성 조력 앱 설계
- 26년도 신규사업 ②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 다국어 AI agent 앱 설계

[기대효과]

신규 사업과제 3,4,5 를 통해 업무를 효율화하고, 제한된 역량을 보다 날카롭게 운용할 수 있고, **어필의 축적된 정보가 학습된 AI 를 통한 난민들의 조력 범위도 대폭 확대될 것임.**

핵심목표 4 “사무실 구입” 관련 (25 년 한정 사업)

- 사무공간 매입을 통한 변동성 risk management 과 고정비 절감 [브라이언 임팩트 2025 년도 펀딩 활용]
- 고정비 절감과 향후 사업비로의 펀딩소요 전량 투입 기반 마련
 - 12 년차를 넘어가는 어필이 향후 지속가능성 확보기반 마련하기 위해서는 브라이언임팩트가 마련해준 기회를 단단한 디딤돌로 삼아 사무공간을 매입하여 높은 고정비를 절감시켜, 향후 10 년은 임대인이 아니라 사람에게 사업비를 오롯이 투자하도록 하고, 신규펀딩 소요는 모두 사업비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 외부 변동성에도 흔들리지 않는 재정 기반 마련 필요
 - 난민과 관련된 활동의 재정마련은 국내의 정치적 변동은 물론, 해외의 정치적 변동요소에 크게 영향을 받음(예를 들어, 미국 트럼프 2 기 정부의 유엔인권이사회 탈퇴와 해외자금원조 중단은 전세계 구호단체, 난민단체, 유엔기구들을 직격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로컬 NGO 들에게도 바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일들을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측)
 - 이에 대응 하기 위해, 사무실 매입은 단기간에 사업비로 현금 소진하지 않고, 국내외 정치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정자산화하여 재무적 위험상황 발생시 급여삭감 외의 Risk management 를 할 수 있게 됨(동시에 변동성이 적은 지속적인 개인후원자 및 지지그룹의 후원 비율을 계속 향후 높여갈 예정임)

❖ 종합 세부사업 계획

1. 난민

가. 난민관련 법제 개정 활동 [핵심목표 1]

세부목표: 난민인정절차 자체 및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자의 처우가 개선될수 있도록 난민법을 포함한 관련 법제가 개정되도록 함

세부사업명	활동내용 및 추진방법
* 다년도 - 선제적 제도개선 사업 1(의무적 국선 변호 제도 구축)	• 한국을 찾은 모든 난민신청자들의 legal representation 을 받을 수 있도록하는 법제구축 사업 • 5 개년 계획 연구, 정책제안, 입법운동
* 다년도 - 선제적 제도개선 사업 2(Complementary Pathway 의 한국형 모델 도입)	• 시민들이 난민 초청과 보호의 initiative 를 갖는 난민 보호체계 구축 사업(시민 초청 사증, 대학 초청 학생 사증 등) • 5 개년 계획 연구, 정책제안, 입법운동
대응적 제도개선 사업	• 인도적체류자의 지위 향상 및 보충적 보호지위 창설을 위한 조사 • 난민 및 인도적체류자 가족의 체류 및 권리보장 관련 해외 입법례 연구 • 난민재신청자의 체류자격과 처우 개선을 위한 조사 • 출입국향 난민신청 제도, 절차, 처우 등 개선을 위한 입법례 연구 • 합리적인 구금 기한 설정, 아동구금 절대금지, 구금 적법절차 도입 등 출입국관리법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개정안 연구 • 난민인정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난민법 개정 운동 • 난민 및 인도적체류자 가족의 체류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운동 • 출입국향 난민신청 제도, 절차, 처우 개선을 위한 진정 및 입법 운동 • 단기간의 구금 기한 설정, 아동구금 절대금지, 구금 절차의 법원 개입 등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관련 입법 운동

나. 난민신청 및 소송 등 법률 조력 [핵심목표 2]

세부목표: 2%의 낮은 난민인정률을 극복하고 보다 많은 난민신청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난민신청 단계 및 법원 소송 단계에서 법률조력을 제공. 난민신청과정 및 체류과정에서 발생하는 출입국의 위법적 관행에 대해 소송으로 다투어 관행 개선 및 선례가 확립되게 함

세부사업명	활동내용 및 추진방법
난민신청 및 이의신청 지원	• 출입국 및 법무부에서 진행되는 난민신청 및 이의신청 과정에서 조력. 면담 동석 및 의견서 제출 등으로 난민지위 인정에 필요한 법률조력 제공.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 대리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불인정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법원에 난민불인정결정취소의 소를 제기. 행정법원 이후로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난민소송 과정 전반을 대리.

출입국향 난민신청자 지원	심사불회부결정을 받아 난민인정절차에 관한 모든 권리를 박탈받고 출국대기실에 장기 대기 중인 난민신청자들을 면담하고 불회부결정취소소송 대리를 통해 법률조력
기획 소송	난민재신청자의 체류자격과 처우 등 문제, 난민신청자 체류자격 변경 불허, 아동 구금에 관한 영상 증거보전신청 등에 관한 기획소송 연구 및 참여
국제인권메커니즘 활용	- 국내절차 소진 난민 사건 유엔 자유권위원회 진정, 출입국향 불회부결정 난민신청자 유엔 자유권 위원회 진정 및 기타 사안에 따른 유엔 특별절차 진정 - 출입국향 심사불회부결정 취소소송 법률조력 필드에 도입된 적극적인 프로보노 네트워크 모델(어필-출입국향 WG-UNHCR-인천지방변호사회-변협 난민지원변호사단 등) 정착 및 확장 - 리딩 케이스 발굴, 사례/리소스 공유, 세미나 등
연대사업	- 주요 난민 발생국가 국내 연대단체 법률지원 :주요 국가(25'시점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 미얀마지시민모임) 내 법률조력 소요 지원 - 프로보노 네트워크 모델 확장 :출입국향 심사불회부결정 취소소송 법률조력 필드에 도입된 적극적인 프로보노 네트워크 모델(어필-출입국향 WG-UNHCR-인천지방변호사회-변협 난민지원변호사단 등) 정착 및 확장 - 리딩 케이스 발굴, 사례/리소스 공유, 세미나 등 - 국내 난민 인권보호 활동의 중심을 담당하고 있는 난민인권네트워크 월례 회의 및 워크샵 참여. 난민지원네트워크의 역량강화 및 조직 구축에 기여 - APRRN (Asia Pacific Refugee Rights Network) 연례 회의 및 정기 conference call 참여. 아태 지역 난민인권 이슈에 대해 상호 학습 및 공동 대응 - 난민인권네트워크 출입국향 WG 활동

다. 난민 인식 제고 [핵심목표 3]

세부목표: 난민들을 직접 만나지 않는 시민들에게 난민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전달하여 오해를 불식시키고 조력의 필요성 강조.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시민들이 난민들의 삶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 한국에서 난민 인권 옹호 활동에 대한 지지층이 확산되도록 함.

세부사업명	활동내용 및 추진방법
시민 인식 제고	- 대중행사 : 난민의 날을 맞아 열리는 난민인권네트워크의 연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시민들에게 난민 이슈에 대해 널리 알리고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대중 강의 : 난민의 정의, 한국에서의 난민의 현황에 대해 학교 및 외부 단체를 통한 강의를 통해 난민에 대한 인식 제고
COMM.통한 기반 확장사업	- 난민에 대한 궁금증, 상식, 오해 등에 대해서 짚막한 비디오로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하는 영상 제작 - 난민 당사자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 제작

라. 난민 사건 사례 관리 체계, DB(RAG 검색) 및 업무자동화 FLOW 구축 [핵심목표 2]

세부목표: 법률조력 소요가 있는 난민들의 편의성 증진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어필의 난민사건의 접수, 검토, 조력, 데이터베이스화 체계의 고도화를 통한 법률지원 고도화 추진

세부사업명	활동내용 및 추진방법
사례 접수 및 관리 체계(CRM) 구축 및 운용	- 다국어를 지원하는 AI 사례 접수 관리 체계 구축(난민들의 편의성 증진 및 서면 일부 자동 생성) (절차 개요) 다국어 챗봇을 활용한 사건의 인테이크 ->CRM 데이터베이스 인별 페이지 생성 및 관리 -> 통계 및 임팩트 측정 체계 구축(체계화)
난민 법률조력 문서 데이터베이스 구축(RAG)	- 어필의 과거, 현재 지원중인 난민사건에 대해 국적, 성별, 난민사유, 핵심 쟁점등의 색인이 가능한 RAG 모델 구축 분류 가능한 DB 구축 - 현재 진행 중인 난민사건 관리의 효율화와 공동화
업무 자동화 FLOW 도입	AI 를 활용한 문서 작업 단계들의 업무 자동화 FLOW 도입 (인테이크, 쟁점 정리, 사안 핵심 요약, 문서 서증명 자동생성)
*(차년도 계획) 다국어 AI agent 앱을 통한 초기 상담 제공 체계 도입 검토	다국어를 지원하는 AI agent 앱 통해 단순, 반복적 초기 상담 신속 지원 검토

마. 기타 활동 [핵심목표 2, 5]

세부목표 : 난민 사례 지원 및 옹호활동에서 식별된 제도적 공백 사례의 역량 내 해결

세부사업명	활동내용 및 추진방법
난민정신건강 지원	- 한국난민정신건강증진 협의체(MHARK) 연대활동을 통한 지원체계 구축 및 워크숍, 정신건강 증진 걷기대회 등 행사 개최 - 개별 사례 지원 및 기관 연계
난민 긴급생활 지원 연계	긴급한 위기상황의 난민 사례자에 대한 제한적, 일시적 긴급지원 사업 연계

3. 홍보 및 교육

가.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지지커뮤니티 구축 및 인식제고사업 [핵심목표 3]

세부목표: 어필의 활동 후원(기부, 활동, 응원)에 관한 3 단계 동심원별 커뮤니티 구축을 통해 어필 활동, 난민과 이주민의 삶을 알려 현대의 가치 확산에 기여 (가장 작은 동심원에는 CORE group, 그외 지지커뮤니티, 그 외 관심 있는 잠재 후원자/지지자)

세부사업명	활동내용 및 추진방법
최협의 - CORE 집단 대상 홍보	개인, 단체 후원자,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CORE 집단에 구체적 활동 소식 전달 및 실제 연대활동, 자원봉사활동 참여 기회

협업 - 지지커뮤니티 구축(뉴스레터, 인스타 계정) - COMM1	- 매달 후원자 및 뉴스레터 구독자 대상으로 어필 활동과 멘데이트 관련 지지 커뮤니티(FAN) 구축 - 뉴스레터 3 종류 : 지지 커뮤니티 생성에 초점을 둔 활동 소식 전달(일반 정기 뉴스레터), 일하는 사람들의 속 깊은 진심 담긴 이야기를 전달(비틀거리며 짓다 뉴스레터), 긴급 호외 뉴스레터 - 인스타 : 단단하고, 가장 빠른 형태의 현장감 있는 활동 전달
광의 - 관심있는 잠재후원자/지지자 계층 확보- COMM2	특수한 문제에 관한 허들을 낮춘 진심, 공감, 일상, 연대에 키워드를 둔 잠재 후원자 계층 확보를 위해 유튜브 채널의 일상적 운영

나. 전문 법률 교육 [핵심목표 3]

세부목표: 대한변협 난민법률지원단 등 전문기관 연수 활용 변호사 교육, 인턴 및 로스쿨 실무수습학생, 실무수습 변호사를 선발 후 어필의 멘데이트와 일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

세부사업명	활동내용 및 추진방법
난민법률지원 교육	대한변협 난민법률지원단, 인천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RELATE 교육 등의 소요를 통해 어필 외부의 난민사건 조력 풀 생성
인턴 교육	- 어필의 멘데이트와 일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OT) - COI 리서치 및 전화응대 방법에 대한 매뉴얼 교육 (OT) - 특강 등 외부 강의 기회 제공을 통한 역량 강화
로스쿨 실무수습 학생 교육	로스쿨 실무수습 학생들을 여름 방학 기간에 4 주간 선발하여 난민사건 서면 작성 및 인터뷰 동석, 재판 참석 등을 통해 난민 법률조력 변호사의 삶을 배울 수 있도록 함
실무수습 변호사 교육	제 14 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선발하여 난민사건 수행 및 공익변호사 업무 전반에 대해 교육 제공

3. 모금 [핵심목표 4]

세부목표: 다양한 방법의 모금을 통해 어필 운영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어필 활동의 지지 기반을 확산하도록 함

세부사업명	활동내용 및 추진방법
기존 후원자 관리	어필의 개인, 단체 후원자의 단기, 장기 후원자 별 맞춤 관리를 통한 지속적 기부 독려(개인화된 메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 후원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활동 소식 연계)
신규 후원자 발굴 1 - 온라인 모금	구체적 난민 사안 또는 옹호 활동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분기별로 사례 모금

신규 후원자 발굴 2- 오프라인. 모금 및 서명 캠페인	난민의 날 등 외부 행사와 결합하여 실외 및 실내에 부스를 설치하여 모금 및 캠페인을 실시함
신규 후원자 발굴 3 - 강의 모금	기존 후원자 및 봉사자 등을 통해 각종 모임(직장,취미,종교,친목 등)에 참석해서 어필 홍보 및 후원 요청을 상시 진행
신규 후원자 발굴 4- 단체 후원 모집	- 국내외 임팩트 재단의 임팩트 지원 펀딩, 국내외 재단의 피해자 그룹별 프로젝트 사업 수행 펀딩을 통한 자원 확보 - 대기업, 공기업, 외국계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자원 확보

4. 사무실 이전 [핵심목표 4]

세부목표: 보다 많은 직원들의 일할 공간 및 안전한 난민 상담 공간 확보 및 임차료 절감을 통한 안정적 사무국 운영등을 위해 추진

세부사업명	활동내용 및 추진방법
공간 설계	- 환대를 경험하고, 안전함을 느끼며, 비밀이 보장되는 상담공간 - 어필 및 연대단체의 편안한 회의공간 - 융합적 업무와 창의성이 발휘되는 업무공간 - 효율적인 비품 수납 공간
실제 이사	3월 말 목표로 사무실 이전
이사 관련 사전, 사후 행정 처리	- 기존 사무실 관련 기본재산 처리 - 사무실 주소 수정신고

● Risk Mitigation 리스크 방지

어필의 지속가능성과 연계된 “8. 사무실 이전” 사업에 관해서는 브라이언 임팩트 재단 지원금을 통해 부동산 구매 및 설계, 운용 등에 있어서 재정적인 리스크가 없음

23년과 24년도 신규 업무공간 탐색

- 23년과 24년도에 사무실 매매를 위해 종로구를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탐색해 본 결과, 적절한 가격에 적절한 업무공간을 갖춘 사무실을 찾기 어려움을 알게 됨. 추가적인 재원을 더 이상 투입할수는 없다는 결정.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 대출 등을 알아보았으나 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으로 인해 대출을 할 경우 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서 사무실 탐색을 보류

25년도 신규 업무공간 탐색 조건

- 브라이언 임팩트 지원금 외의 신규 펀딩 마련하지 않을 상한 설정.
- 사무실 업무공간을 위한 조건 : 1) 난민들의 방문 접근성, 2) 현재 크루들의 거주 공간과의 거리 조정, 3) 연대단체 활동의 접근 용이성, 4) 행정법원, 고등법원 및 기타 주요 출장 공간과의 효율적 거리, 5) 고정된 방실이 없는 형태의 Multi-Purpose Room으로서 다양한 활동(업무, 회의, 상담, 촬영, 언론인터뷰, 후원자 지원 업무 등)이 가능한 사무실 구조, 6)개인 공간이나 설치된 컴퓨터가 없는 자유로운 형태로 필요시 재배치를 통해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 조건)
-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사무실 찾아 계약 및 구매 완료

향후 진행 계획

- 계약 체결 및 리모델링 공사 (~25.2)
- 사무실 이사 및 활용(~25.3)

● 임팩트 측정

1) Primary Outcomes

보다 많은 난민(한국정부와 사회로부터 거부된)이 법률 조력을 받는 것(어필을 통해, 또는 선두에 있는 어필의 트레이닝을 거친 다른 변호사들을 통해)

보다 많은 난민관계 법률 및 제도가 옹호활동을 통해 중장기적 한국의 이민정책과 난민의 자리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

보다 많은 한국사회의 시민들이 난민에 대하여 듣고 이해하게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환대를 결심하게 되는 것

2) Outputs

연번	측정지표명	측정방법	성공을 위한 목표치
1	제도개선비율	- 선제적 제도개선사업 2가지에 대한 다년도 계획중 진척도 백분율(%)로 연말 평가 - 대응적 제도개선사업 중 당해연도 정부 제도 개악 저지, 정부 제도 개선 달성 목록화	- 선제적 제도개선 사업 2가지 : 5년 안에 100% 기대 - 대응적 제도개선 사업 : 3개 개악 저지, 3개 개선 달성
2	법률조력비율	PoC(Persons of Concerns)의 과거 지표(매년 약 100-120명)을 수치화, 계량화된 Case Intake Database(2023. 1.부터 사용예정)하여 확인	200
3	인식개선비율	강의 / 온라인 영상 시청 / 인식개선 홍보물 제공 등의 수치를 합산한 지표를 생성하여 평가	지표 개발 후 목표 생성
4	AI Integration	- CRM, DB(RAG), 업무 FLOW 자동화 진척도 연말 백분율 평가 - DB 완료 100%가 되고 체계안정화 되면 차년도 다국어 agent, 서면작성 앱 개발 진척도 평가	체계개발에 관한 외주 시한 설정 후 진척도 평가

■ 제5장 미래비전을 위한 여정맵

● 여정맵

제 5 장은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후, 재단 사무국과 함께 작성합니다.

조직의 미래비전

한국을 찾은 난민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 평화 이야기를 새롭게 쓰기 - 약자의 희생이 아닌 존중할 때 이루어지는 평화
- 동아시아의 모든 국가에 있는 인종주의와 탈식민 이후 한반되지 못한 평화에 대한 열원이 난민에 대한 환대로 한국에서 꽃피는 것
- 모든 난민이 인간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

한대의 공동체를 일구어 가기

- 한대를 말이 아닌 삶으로 살아내는 공동체
- 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곳+공동체를 이루며 일하는 곳
- 비영리를 꿈꾸는 이들의 즐거운 경험 제공. 난민 법률 조력을 꿈꾸는 이들의 배움터
- 이주민, 난민이라는 호칭을 넘어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람, 존재 그 자체로 보고 함께 살아가는 길을 동행하는 것

한국의 난민,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 난민 인식 개선 활동의 최전방 센터: beyond legal aids, 관심의 흐름을 바꾸다
- 부당한 인권침해를 당하는 난민들의 이야기가 한국사회에서 사라지는 것
- 한 명의 사람이 난민에 대하여 더 알게 하는 동시에 난민과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

난민 조력 시스템 구축 (효과적인 체계, 프로보노의 벽을 낮추는)

- 구성원들이 self-착취나 목표를 위해 소비되지 않고 덕업일치의 좋은 사례가 되는 것
- 하고 싶은 일을 자발성에 기초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조직이 되는, 동시에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난민,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 옹호조직

- 한국에 온 난민들이 법률적인 지원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는 세상
- 취약한 이주민들이 인신매매 피해와 구금 등을 당하지 않고 보호 받는 세상
- 한국의 난민 인권운동의 분화되어야 할 많은 부분 중 법률 조력분야를 어필이 든든하고 기댈 넉넉한 품으로 단단하게 서있는 것
- 난민정책 변화를 위한 선구자 역할
- 한국의 난민관련 법제도 개선
- 난민 법률 조력의 리딩 케이스 축적
- 난민, 이주민들의 첫 지원처 / 억울한 외국인의 기댈 언덕
- 한국에서의 난민 처우가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

부당한 폭력에 저항하는 사람들과의 연대 (폭력을 멈추게 할 수는 없을지라도 함께 저항하기)

- 기업들(사업주)의 이주민 처우 및 인식 개선

연계 영역의 발굴 (어떻게 Integrated support를 할지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돈의 흐름을 바꾸는)

- 다른 비영리 단체 및 활동가들에게 지적, 물리적 지원
- 난민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의 HUB

어필을 한마디로 소개한다면?!

어필 의견

법률 조력으로 취약한 이주민을 환대하는 공동체

취약하고 소외된 국내외 외국인들에게 법률 지원을 하는 따뜻한 단체

한국을 찾은 이주민, 난민의 법적권리를 옹호하는 단체

난민제도의 모순을 최전방에서 해결하며 제도적 변화를 꾀하는

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임팩트 뒤에 놓지 않는 공익법 단체

브라이언 임팩트 의견

한국 난민 인권운동의 허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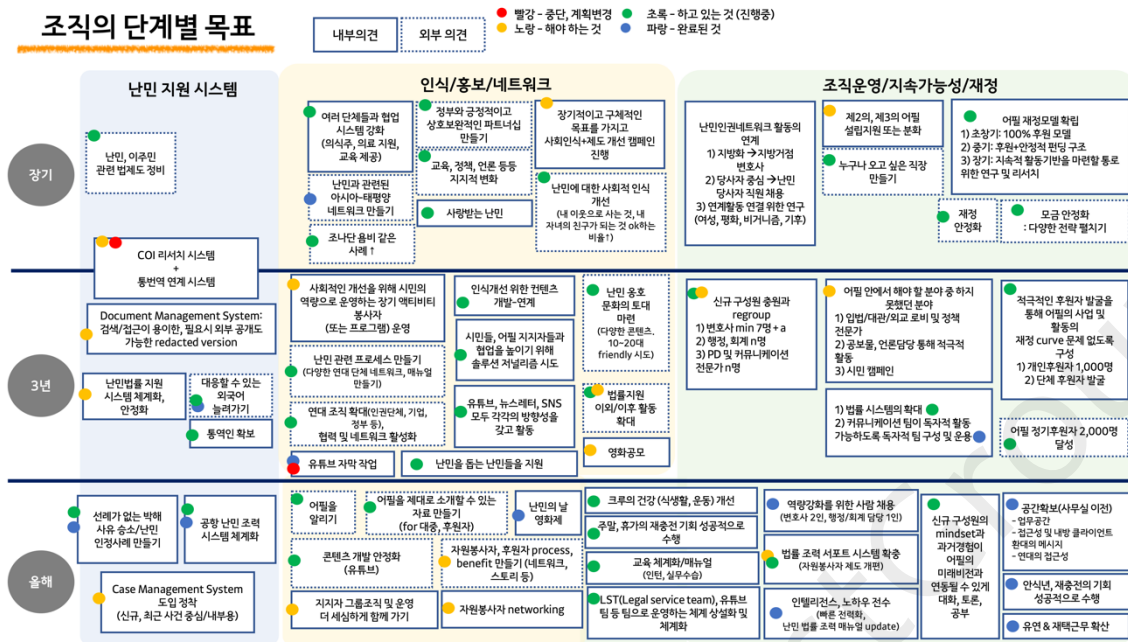
국가의 경계선이 아닌 지구경계에 있는 모두의 인권을 위한 공익법 단체

이주민, 난민들에게 법적 지원을 해주는 공익 변호사들의 조직.
다문화 한국을 만들어 가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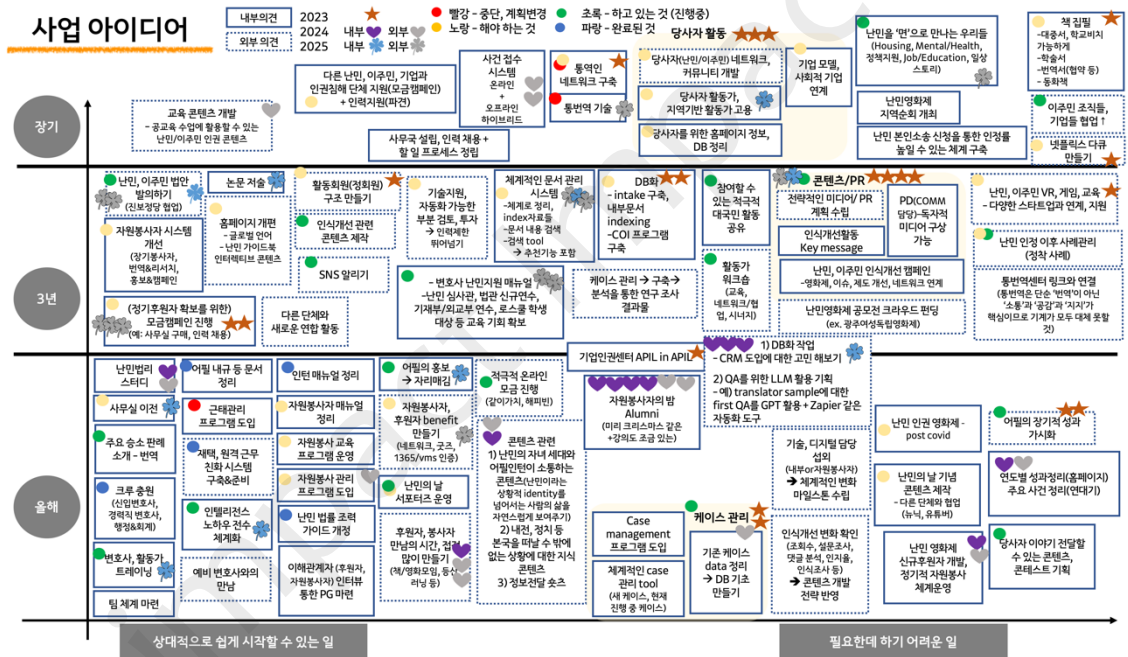
법률 전문성을 가지고 난민, 이주민들을 위한 포용적 세상을 만들어가는 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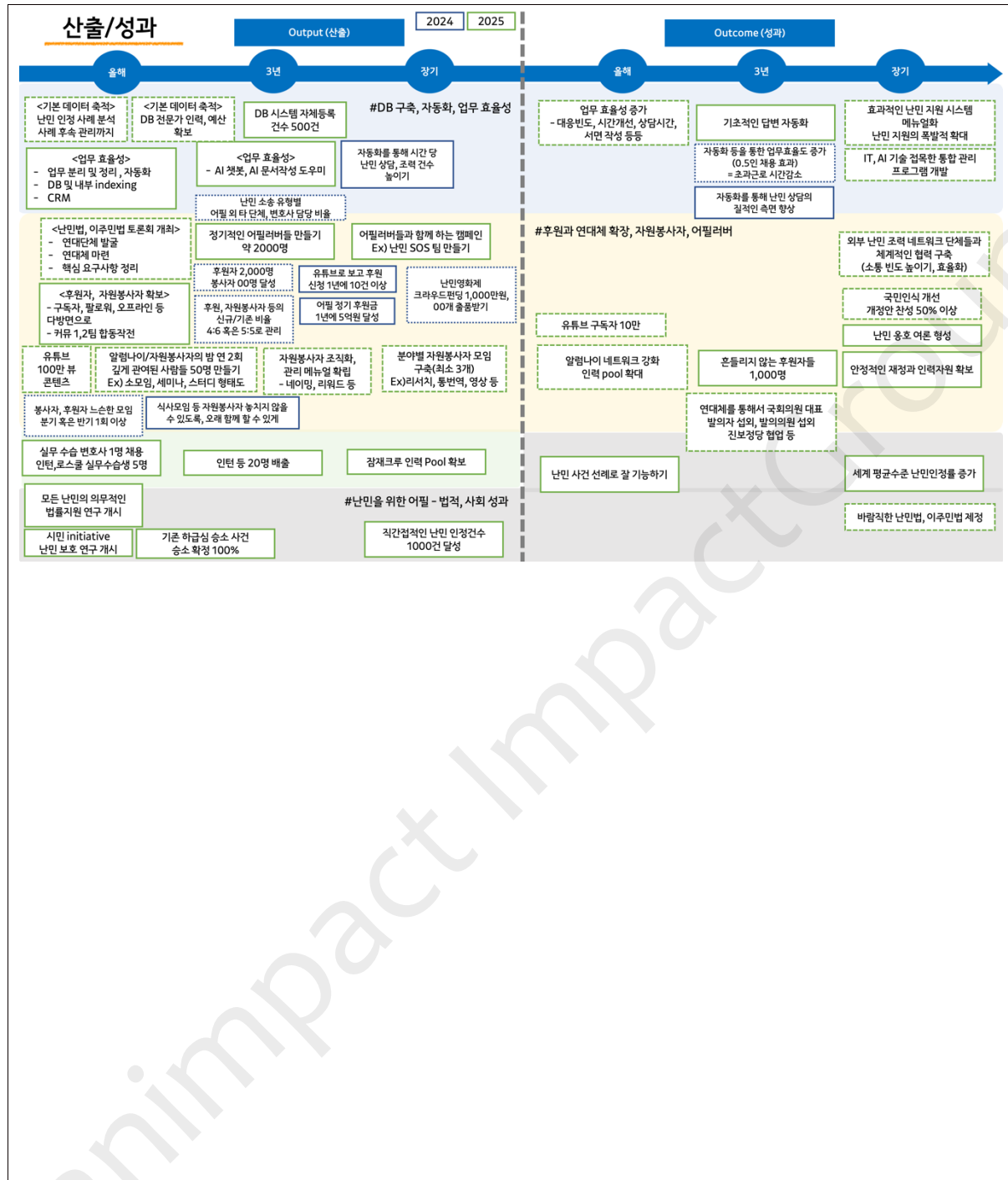
공익법센터 어필은 이주민과 난민이 한국사회에서 환대받고,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법률 옹호 활동을 중심으로 연대하는 조직

조직의 단계별 목표



사업 아이디어





■ 필수 확인사항 및 지원사업 동의

아래 '필수 확인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확인>란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필수 확인 사항	확인
1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과 첨부자료는 모두 사실이며, 제출한 서류는 심사 및 관리를 위해 관계자에게 공개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2	본 사업의 결과물과 사업을 통해 얻은 지식 및 기술은 공익을 위해 널리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제품, 서비스, 프로세스, 기술, 자료, 소프트웨어, 데이터, 기타 혁신 및 지적재산권을 의미합니다.	■
3	본 사업의 임팩트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개발 및 측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임팩트 측정 결과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외부에 공개합니다.	■
4	본 조직은 우리의 문제해결 프레임워크가 모델링을 통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합니다.	■
5	지원받은 사업비에 대해서는 [외부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결과를 외부에 공개합니다. [외부회계감사]에 필요한 비용은 지원받은 기부금에서 책정합니다. (단, 연간 1억원 미만의 경우,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외부회계감사인]은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선임하되, 필요 시 재단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6	본 조직은 윤리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중대한 윤리적 문제가 발생 시, 재단의 요구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반환합니다.	■
7	본 조직은 브라이언임팩트의 [임팩트 그라운드]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본 조직 참여자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사업 운영을 위한 정보 수집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조직 관계자의 성명, 핸드폰번호, 이메일 주소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지원 사업 종료 후, 1년	■

본 조직 공익법센터 어필 (대표자: 정신영)은 사업계획서 제출 전 상기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2025. 1. 17

공익법센터 어필 (직인)

